

지역약국 복약지도 서비스의 질적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

이주현, 신현택, 손현순, 임경화, 송인숙¹, 이영숙¹, 김원희¹

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, ¹숙명여자대학교 의약정보연구소

배경: 약사의 복약지도가 의무화되었지만 지역약국의 약제서비스를 질적으로 평가할 기준 및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. 사회전반적인 분위기나 정책들은 약사의 복약지도를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약사들이 부담감만 클 뿐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.

목적: 지역약국의 복약지도 평가의 질적 기준이 될 수 있는 내용 및 과정에 대한 지침을 정리하고 그 질적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약국이 구비해야 할 인프라와 제반 요인을 자가 평가해 보고자 한다.

방법: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국의 숙명여대 동문 총 1269명을 대상으로 복약지도 서비스 제공환경 및 제공과정에 대한 평가 및 복약지도 일반사항을 우편설문조사하고 빈도분석, 교차분석, 신뢰도 분석, ANOVA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.

결과: 총 165명의 약사가 응답하였고 이들 중 40-50대가 절반 이상이었고, 서울, 경기지역이 73%를 차지하였다. 대부분의 약국에서 컴퓨터와 프린터 등의 복약지도 기본장비를 구비하였고 복약지도 보조매체 활용비율은 구비비율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 대부분 구두로 복약지도를 시행하고 용법·용량 관련 설명에 있어서는 구두와 서면 병행비율이 높게 나타났다. 반복되는 처방에 의해 환자가 약 복용법이 익숙해지면 복약지도를 상대적으로 간략히 하고 조제기록부 작성과 복약순응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 비율은 60%를 넘었다. 연령이 높을수록 복약지도 시행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, 복약지도 장애요인으로 업무과다로 인한 시간부족과 환자의 인식부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. 복약지도에 적합한 조제방식에 있어서는 개별 포장방식이 1회복용량 포장방식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89%의 약사가 복약지도문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.

결론: 과거에 비해 약사는 환자 중심적인 복약지도를 시행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. 복약지도 서비스에 대한 질적 기준에 의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약국인증제도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, 이를 통해 약사의 직능수행도 뿐만 아니라 환자의 만족도 및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.